

AUTHOR 안춘근

TITLE John Calvin의 예정론 연구

IN 복음과 신학

vol.1 (1989):37-59

John Calvin의 豫定論 研究

안 출 근

目 次

I. 서론—豫定論의 位置 및 重要性

1. 敎理史의 觀點에서

2. Calvin 神學의 출발점 및 논리적 귀결

II. 豫定論의 思想的 背景

1. 성서의 證언

2. Augustine의 豫定思想

3. Calvin 神學의 論理에 대한 分析

III. 宗教改革者들의 豫定觀

1. M. Luther의 豫定觀

2. Zwingle의 豫定觀

IV. Calvin의 豫定論을 비판하는 理論들

1. A. Pighius

2. H. Boisec

3. J. Arminius

4. J. Wesley

5. E. Swedenborg

V. 問題點

VI. 結論

I. 序論 — Calvin 豫定論의 位置 및 重要性

1. 敎理史의 視點에서

칼빈의 神學이 거의 아거스틴의 유산을 체계화 시키고 보완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豫定論 역시 Augustine의 유산인 것이다. Wycliffe, Luther, Zwingei, Zanchius Owen, Whitefield, Toplady와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도 이 豫定의 敎理를 세웠으며 또한 가장 근대에는 A.A.Hodge, R.L.Dabney

Cunningham, E. W. Smith, Shedd, B.B. Warfield, A. Kuyper 등이 이 豫定의 敎理를 적극적으로 가르쳤다. “宗教改革 時代에 있어서 처음으로부터 약 100년 전 까지만 해도 改新敎敎師들과 敎育者들의 대다수가 이 敎理를 대담하게 밝히려고 있었다.”

“파기의 영구 敎會에서는 예정포리를 說敎하지 않는 자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에는 전혀 그렇지 못하니 現代의 敎會는 宗教改革의 原理를 대체로 버린 셈이다. 따라서 ‘이기뿔’(I-Chabod) 즉 ‘영광이 떠났다’(삼상 4:21)가 우리의 聖壇과 敎會門의 대부분에 쓰여졌다”^{註1)}고 Toplady는 개탄한다.

이것은 성서적 타당성과 논리적 귀결점이 人間 보다도 神의 절대적 주권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사상이나 포리의 발전은 하늘에서 땅으로, 神에게서 人間으로, 초역사에서 역사로 발전하는 추세 때문일 것이며 따라서 그 說得力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2. Calvin 신학의 출발점 및 논리적 귀결

칼빈의 神學思想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다. 막스 웨버(Max Weber)같은 경제학자는 칼빈을 近代 資本主義 思想의 始祖로 보기도 한다. 화란의 개혁파 신학자 카이퍼(A. Kuyper)는 칼빈주의를 이교주의 이슬람주의, 카톨릭주의 등과 대립시켜서 “하나님은 피조물을 초월하여 높은 데 체질되라도 성령의 신으로서 피조물 간에 직접적 교계에 들어오신다는 승엄한 사상”이라고 하였다^{註2)}. 이와같이 칼빈 연구자들은 각각 연구의 축을 달리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예정포리에,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런데에, 또는 객관적 신관념에, 혹은 그의 구속론에 자신의 칼빈 연구를 체계화시켰다. 그러나 Bobatec 이 말한 소위 “제요리(諸要理)를 연결시키는 대각선”은 찾아내지 못하고, 모두 가설에 그쳤다. 칼빈 신학의 실질적 원리문제는 20세기 20년대에도 미해결의 문제로 남아 있었다. Doumergue는 두 초점을 가진 타원에 비교하여 예정론과 성서주의라는 두 원리가 칼빈의 사상체계의 근간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K. Holl은 “칼빈의 신학적 노작의 의의는 그가 신관념을 중심점

註 1) Loraine Boettner, “The Reformed Doctrine of Predestination” (한국어) 홍의표, “칼빈주의 예정론” 배환출판사 1972, p.14

註 2) M. Weber, “The spirit of Capitalism”, “Preface to Zanchius’ Predestination”, p. 16

註 4) A. Kuyper, “Calvinism”, New York, Revell, 1899, p.22

에 넘으려고 한 박력에 있는 것이다⁹⁸라고 말하여 사상 이상의 것에 그의 모든 사상이 근거해 있다고 한다. 칼빈에게서 신학체계의 실질적 원리를 못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H. Baucke는 칼빈신학의 사술에서 그 의곽을 구성하는 형식적 원리를 셋으로 구분하여 (1) 할리주의 (2) 장반통함(Complexio Opositorum) (3) 성서주의라고 일컫는다.⁹⁹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P. Wernle는 "칼빈신학은 처음부터 실제로 중심을 가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 모든 방면에 일관하여 관찰하려는 것은 은총의 사상이었다"¹⁰⁰고한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기독교강요" 제 I 편은 6장으로 되었는데 그 속에 그의 전 신학적 의도가 잘 표현되어 있다고 한다. 즉 제 I 장은 律法論인데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고 은총의 종교이며 바로 율법은 은총을 이해하게 하는 길이라 하여 여기서 기독교의 전 본질의 요약과 있다. 칼빈은 율법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전지에서 기독교의 전 진리를 설명할 수 있었다. 제 2장에서 신학의 객관적 전체인 삼위일체 신과 은총안에 대한 배설을 받은 공동체로서의 교회론을 설명하고, 제 3장에서는 은총신앙의 실제적 적용으로서의 기도에 관하여 주기도문을 기초하여 강론하고, 제 4장에서는 성찬론을 전개하였는데 그것을 은총의 매개라고 이해하고, 제 5장에서는 성찬의 바른 집행을 지도하고, 제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논하고 이것이 최고의 은총이라고 한다. 기독교 강요 I 편에서 칼빈이 전달하려고 한 것은 주의나 사상이 아니고 그의 생이 출발한 처음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시하는 것이다. 칼빈이 겪은 은총의 체험은 성서의 주제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의 신학의 출발점은 사실 그의 회심이 가져온 하나님 체험이었다 Calvin의 회심을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에 억압된 것이 동시에 그를 성서에 부족시킴으로 성립되었다. 그러므로 H. Baucke는 Calvin의 신학을 성격지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루터주의자나 개혁파나 독일인이나 서구인

(5) K. Holl, *Gesammelte Aufsätze* III, Tübingen, 1928, S. 261.

(6) H. Baucke, *Die Probleme der Theologie Calvins* 1922.

(1) 은 형식적 변증법으로 신학내용을 통제하는 것, (2) 은 상반된 복권의 개념들을 변증법적으로 연결하는 것 즉 하나님의 主權과 人間の 전적 타락이란 두 극단을 결부시키는 것, (3) 은 형식적인 것으로서 성서의 이구를 절대관점으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서기자의 논리 방향에 순응하는 것이다.

(7) P. Wernle, *Der Evangelische Glaube* III, 161

사이에 칼빈이 실제로 성서주의자였다는 것에 이의를 가지는 자는 없다. 즉 성서가 그에게 있어서 루터에게서 보다 다른 매우 독특한 의미에서 유일한 지위를 가졌다는 것, 그는 루터보다 다른 매우 독특한 의미에서 유일한 것이다¹⁰¹ 이와같이 칼빈의 성서주의는 회심이 지어준 그의 신학태도라는 것을 사람들은 공통되게 승인한다. 그리고 칼빈의 신학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에 저항하는 자까지도 복종시킬 만하게 힘으로 나타난 은총의 사실이라는 것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을 경시하지 않았다. 그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하여 얼마나 은혜 스투운가를 강조한다. 이와같이 그의 신학은 회심으로부터 결정된다. K. Holl이 말한대로 그의 신학은 그가 신관념을 모든 사교의 중심에 넘으려고 한 노력에 있다. 이것이 그의 신학적 출발인 동시에 논리적 결론이다.

II. 豫定論의 思想的 背景

1. 聖書的 證人

J. Calvin은 豫定思想에 대한 성서적 증언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성서는 성령의 화교이므로 그 안에서는 알아야 할 것이 하나도 생략된 것이 없다. 그와 동시에 일어서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성서가 예정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을 신자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¹⁰²

칼빈은 예정의 교리가 성서의 교실임을 확신했고 성서에 무수하게 나오는 '예정' 또는 이에 상관은 말을 가지고 이 敎理를 증거하였다. 기독교 강요에서 몇가지 예를 들어 보면, (1)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엡 1:4).¹⁰³ (2) "내가 아픔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하였다"¹⁰⁴ 하심과 같이 "너"(롬 9:13).¹⁰⁵ (3)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

(8) H. Baucke, *Die Probleme der Theologie Calvins*, S. 44

(9) John Calvin, *Institute* III, x x i. 3

(10) *Institute*, III, x x ii, 1 (11) *Ibid.*, 6.

버리지 아니하리라”(요 6:37, 39)¹²⁹.

이외에도 Boettner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고 있는 상구는 다음과 같다.¹³⁰
행 4:27-28, 열 1:5, 11, 롬 8:29-30, 고전 2:7, 행 2:23, 13:48, 열 2:10, 롬 9:23, 시 139:16.

2. Augustine의 豫定思想

John Calvin은 Augustine의 예정사상을 조직화하였고 더욱 발전 시켰는데 Augustine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①人間이 행을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에 對하여 信仰을 가지는 것은 神의 은혜의 효과가 아니면 안된다는 것이 장서의 논리적 일치요 공정한 견해이다. 따라서 예정은 죄인의 구원과 관련하여 생각하여야 하며 예정을 ‘영원의 관점에서(Sub Specie aeternitatis) 본 구원’이라고 불리기도 좋다. 또한 선택받지 못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作定은 黜過의 作定(The decree of pretermission)이며 유기(Reprobation)와 선택(Ellection)은 다르다. 유기에는 의도된 결과와 보증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능력이 없다.¹³¹

②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여 루터교 신학교수 J. L. Neve는 이렇게 설명한다.¹³²

a.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도록 예정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형벌 받도록 예정되었다. 이처럼 예정된 자들의 수는 고정되어 있고 변경시킬 수 없으며 또한 서로 교체될 수도 없다.

b. 예정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정의 특별한 효험으로 인내의 은사를 주신다. 이들은 넘어지고 타락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언제까지든지 그렇게 행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은 거역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12) *Ibid.*, 7. Calvin은 요 6:37, 39를 위의 같이 요약했는데 37절의 강조점은 “내가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겠다”는 말씀에 있고 이어서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를 주의하여 연관시켜 해석해야 할 줄 안다.

(13) L. Boettner, “The Reformed Doctrine of Predestination” 권역, 종의포 “권인主義 豫定論” 배영출판사, 1972 pp.30-31

(14) L. Berkhof “Th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神學叢譯 “기독교 프리사”, 성안문화사, 1959, p.152 (15) J. L. Neve, 서남동역, “기독교의 프리사” CLSK, 1965, pp. 234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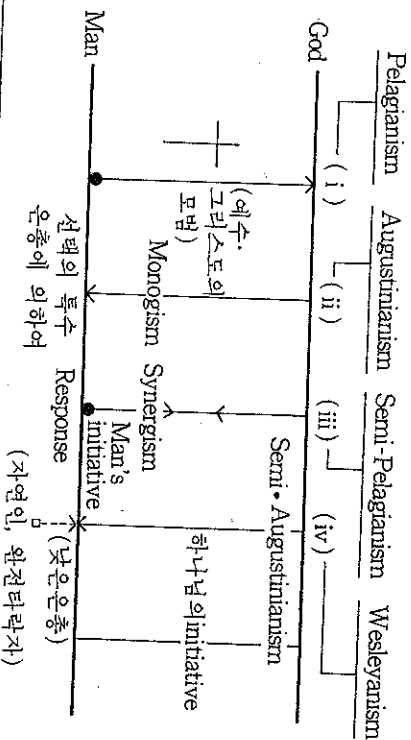
c. 예정되지 못한 자들의 경우는 그와 경반대이다. 그들은 비록 부르심을 받고 義롭다 하심을 얻고 체례를 통하여 신성되고 새로와질 참된 그리스관으로 보일지라도 결국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d. 그러면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셨는가?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는 말로 죽하다 모든 죄조물은 그러한 창조주 앞에서 겸비하게 허리를 굽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선택되지 아니한 자들이 버림을 받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책임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의지로 타락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단지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③ 한편 Augustine과 Calvin의 사상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면 重生의 은혜에 대한 것이다. Calvin이 重生의 은혜는 한번 얻으면 다시 상실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Augustine은 상실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는 중생하고 오래 참는 자들과 또 상실한 후에라도 중생의 은혜를 회복하는 자만이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였다.¹³³

3. Calvin神學의 論理에 대한 分析

(1) 人間の 전적 타락, 완전 무능력에서 보는 은총관¹³⁴



(16) L. Berkhof, op. cit., p. 153.

(17) 趙鍾男, 요한에스페의 신학,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6월 pp. 106-122

(i) Pelagianism—원죄설을 부인하며 구원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노력으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ii) Augustinianism(Calvin)—Sola gratia 즉 구원이란 하나님의 예정의 뜻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며 믿음이란 예정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물이 다. 인간은 선택이라는 특수 은총에 의하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

(iii) Semi-Pelagianism(R.Catholic)—人間은 部分的으로 타락했으며 인간은 어느정도까지는 구원을 성취할 수 있으나 전적인 구원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총은 이 불足を 채워주는 부분이 된다. 우리는 이것을 神人協同說(synergism)이라고 한다.

(iv) Wesleyanism—自然人(원죄타락자)이 보편적 先在恩惠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회복된다.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능력 곧 자유의지를 갖게 된다.

Calvin은 Augustine의 입장에서 자신의 思想을 체계화하며 발전시켜 나간다. 그러므로 인간의 전격타락, 또는 완전무능력을 강조하면 강조할 수록 人間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을 필요로 하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의 특수한 선택에 의해서만 구원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2) 人間の自由意志에 대한 견해

Calvin은 인간의 의지를 세가지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¹⁸

a. 아담의 原意志(범죄전)—죄짓지 않을 가능성을 가진 의지(Posse non Peccare).

b. 타락한 인간의 의지—죄짓지 않을 수 없는 의지(non posse peccare). care). c. 성도의 의지—죄 지을 수 없는 의지(non posse peccare).

성도의 의지는 성령으로 불붙어진 후에 의지할 힘을 가진다.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역사이다. Calvin의 이러한 견해는 Pelagius에 대항하는 이론으로서 필연적인 듯하면서도 좀 지나쳤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곧 Augustine은 인간 의지를 말(馬)에 비유하여 만일 하나님이 그 말을 타서면 울바르케만 움직이

(18) Institute II. iii13을 견정연, op. cit., p. 185에서 인용한 것을 재정리함

게 되고, 마커가 타면 邪惡한 길로만 갈 수 밖에 없다고 했는데¹⁹ 이러한 극단적 견해의 필연적 결과로 Calvin과 같은 이론이 성립되었다고 생각된다. 예정론은 이러한 자유의지에 대한 견해도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3) 하나님의 절대 主權思想

Calvin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가지셨으며²⁰ 그의 뜻에 대하여 인간은 감히 할난할 수 없으며 무엇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가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옳은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²¹ 성서에서 하나님을 토끼장에 비유하여 설명한 것을 들어 절대적인 선택의 도리를 그는 변증한다. A. Kuyper는 “창조에도 선택이 있고 섭리에도 선택이 있는 것처럼 영생에도 선택이 있다. 자연의 영역에서와 같이 은혜의 영역에도 역시 선택이 있다”²²고 하였다.

III. 宗教改革者들의 豫定觀

Calvin主敎者들은 Luther를 비롯한 대부분의 개혁자들이 Calvin의 예정론을 지지하였다고 주장한다. 특히 E. Staehlin은 개혁자들이 이 교의를 중요시 하게 된 이유로서 다음의 세가지를 들기까지 했으니 a) 人間の 전적 타락을 인정하고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행할 힘이 없음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b) 로마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를 무시하고 自己義와 공적을 믿어서 그리스도의 은총을 깨닫는다고 하나 그렇지 못하므로 이에 대립하여 그 은총을 울바르케 인식하려는 노력에서 c) 구속과 영원한 천리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묘사의 성서의 가르침에 돌아가려는 의도에서 된 것이라고 하였다²³ 전경연 박사는 이러한 견해를 옳다고 인정하면서 예정론은 논리적인 문제에서가 아니라 복음의 중심사실에서 당연하게 귀결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²⁴

(19) 전경연, “칼빈의 生涯와 그 神學思想” 시교출판사, 1959, 1965(再), p. 89

(20) I. Botter, op. cit., ch.3 전체에서 설명하고 있다. (21) Institute, III. x xiii. 2

(22) A. Kuyper, “Lectures on Calvinism”, p. 272. 인용 I bid, p. 29

(23) E. Staehlin “Johnes Calvin II” pp. 2734 인용 전경연 op. cit., p.208

(24) 전경연, I bid.

그러면 과연 개혁자들이 Calvin의 豫定敎理에 全的인 동의를 하고 있는가 ? 우리는 Luther와 그밖의 몇 사람의 견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 Luther의 豫定觀

결론부터 말하여 Luther는 Calvin주의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Calvin의 敎理를 뒷받침하거나 변호하여 주고 있지는 않다. 우리는 Luther의 신학자들의 설명을 들어보아야 할 것이다.

① Luther와 Calvin의 共通點

이 양자의 사상에 비록 적지 않은 相違點들이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많은 一致點들이 있다. 두사람이 '다같이 하나님의 주권(Sovereignty)과 人間의 피조성과 무능력, 하나님의 남치는 은총과 그의 영원한 선택의 필요성, 그리고 인간의 사죄에 대한 불가결한 신앙의 위치등을 주장한 바 있다.²⁹⁵ 한편 池元禧박사는 루터와 칼빈이 信仰의 本質 및 그 기능에 대한 설명에서 완전히 一致한다고 보고 있다. 신앙은 선택에서 나오지만 선택은 신앙에서 나오지 않으며 따라서 或者들은 그들의 召命과 회개와 義認에서 영원한 선택으로 생각을 돌려야 하는 바 召命 가운데서 선택을 인식하게 되고 우리들 자신도 역시 선민에 속하고 영원한 영광에의 확신을 갖게 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²⁹⁶

② Luther와 Calvin의 相違點

a. 구원의 확증에 대한 출처 - Luther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곧 복음에서 이를 찾았고 Calvin은 선택의 확실성에서 찾았다.²⁹⁷ b. 잃어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²⁹⁸ Luther는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신앙을 소개해 주고 그들의 멸망을 없게 하기 위하여 활동하시는데 이같은 하나님의 활동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인간의 반역으로 억제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Calvin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반역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개심시키기 위하여 역사하시지 않으신다 (Inst. II. x x iv, 16).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들을 기회를 빼앗으시거나

(25) 池元禧, (배환국편) "루터와 종교개혁", 천돌리아사, 1972, p. 272

(26) I bid., p. 269.

(27) I bid., p. 259. (28) I bid., p. 260.

또는 反對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들의 맹목과 우둔을 더하게 하신다. (Inst. II, x x iv, 12).

c. 은총의 본질 및 역사 방법(범위) - 池元禧 박사는 이것을 가장 뚜렷한 차이로 보는데 Luther는 보편적 은총을 말하는 바 인간이 분별할 수 없는 은혜된 뜻과 상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시사적 뜻을 가지는 '사랑의 하나님'과 '은총의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그 자신 가운데 다 가지고 계시다.²⁹⁹

Calvin은 특수한 은총을 말한다.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속죄를 그의 선민에게 국한시킨다. 선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된다.'³⁰⁰

d. 예지와 예정

Luther: 예지와 예정을 구별한다. 예지의 범위는 선악을 막론하고 모든 피조물에게 미친다. 그러나 그것은 악의 근원이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악의 원계를 설정하여 선을 위하여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다. 한편 예정의 범위는 오직 선한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미친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에 속하는 모든 것을 얻게하고 도와주고 축진시키는 근원이 된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근거하여 있는 반석인 것이다.³⁰¹

L. Berkhof도 Luther에 대하여 "그는 Calvin만큼 이 교리를 뚜렷하게 내세우지 못하였으며 때로는 유기적 교리를 否定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혹은 그것을 예지에 의존케 했다"고 설명하였다.³⁰²

Calvin은 豫知豫定論(infra lapicarian)의 見解이긴 하지만 예정이 예지에 우선하는 느낌이다. C. Hodges는 "하나님은 그 자신의 영광, 곧 그의 본성을 완전히 드러내기 위하여 맨 처음에는 세계를 창조하기로, 다음에는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기로, 셋째로는 타락된 인간중에서 자비의 그릇으로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일정한 수효의 사람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였다.³⁰³

(29) I bid., p. 272

(30) I bid., p. 270.

(31) J. L. Neve, op. cit., p. 467.

(32) L. Berkhof, op. cit., p. 167.

(33) J. L. Neve, op. cit., p. 429.

e. Luther가 말하는 예정의 의미

예정을 선행적인 것(a priori)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결과는 거짓된 안도감이나 반대로 절망감이다. 예정은 후천적인 것(a posteriori)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즉 그것은 우리의 구속과 소명과 의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하여야 한다.³⁰⁾

③ Luther사상의 더 상세한 진술

J. L. Neve는 캄나츠의 진술과 안드레의 진술³¹⁾을 소개하므로 루터의 견해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비교 설명한 바를 보충 설명한 정도이다.

(2) Zwingli의 豫定觀

Zwingli도 이 교리를 明白한 말로 가르쳤다. 그리고 그는 Calvin처럼 神的 動因과 죄와의 관계를 묘사함에 있어 신중하지는 못하였으나 유키를 効果의 作定(efficient decree)이라고 주장하였다.³²⁾ Berkhof가 지적하는 '신중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 Zwingli는 하나님의 선택을 기독교의 범위에 국한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택된 자가 믿음에 이르기 전에 죽는다 해도 그는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선택의 범위는 OT의 성도를 뿐만 아니라 Mercules, Theseus, Socrates, Aristoteles, Antigonus, Numa, Camillus, Cato, the Scipios(로마의 정치가 및 장군들)등의 각급 영웅과 위인들까지도 포함한다(Works iv. 35) "간단히 말하면 세상의 시초부터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신실한 영혼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 영혼은 없는 것이다"(Works iv, 65).

Luther가 신앙의 의인과 불가분리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주관적 선택을 채택하여 "회개하신 아들에게 경청하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예정이 주어지리라"고 한데 반하여 Zwingli는 순의로 하나님의 임의적 결정에 근거한 객관적 선택을 주장하였다. 그는 "선택의 교리가 자유의지와 모든 공력을 폐지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극단적인 결정론의

일정에 이르게 되었고 자기의 행함이 곧 하나님의 행하심이며 자기는 단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여진 방편이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다.³³⁾

(3) Melancthon의 豫定觀

그는 그의 罪의 중생의 사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중요하였다. 그는 가능한 한 많이 豫定の 문제를 辟하였다. Melancthon은 人間の 全的 不自由에 관한 교리에서 처음에는 Luther와 完全 일치 하였으나 의지부자유(意志不自由)교리를 強하게 反對하는 데서 의지에는 어느 정도의 物質的 자유와 영적 자유가 있다고 하여 결국 合力重生論(Synergism in regeneration)을 가르쳤다.

(4) 結論(改革者들의 思想的 綜合)

개혁자들의 예정론은 결코 Calvin주의와 一致하지 않는다. Zwingli처럼 극단적인 예정론자가 있는가 하면 Melancthon처럼 R. Catholic Church의 입장으로 기울어지기도 하였다. Luther도 유키교리는 찬성하지 않았으며 (많은 회의론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은 Calvin 자신도 人間の 全적 타락에 대해 일종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³⁴⁾ J. Balsec과의 논쟁에서 보겠지만 Calvin의 극단적인 태도(반대자 처벌)에 대하여 다른 개혁자들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다. 이 모든 일들은 예정론 자체가 지닌 신비와 모호와 함께 개혁자들도 이에 대한 뚜렷한 견해를 갖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의 敎理로 묶어 버리려고 할 때 찾아온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이제 우리는 이 교리에 대한 반대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다시 그 논리적 귀결을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IV. Calvin의 예정론을 비판하는 理論들

Calvin의 예정론, 특히 그의 유키교리(遺棄敎理)는 마치 벌집을 건드려 놓은 것 같은 반발을 초래하였고 계속적인 논쟁과 혼란을 조성하여 왔다.

(37) J. L. Neve, op. cit., pp. 375f. (38) L. Berkhof, op. cit., p. 167. (39) I bid.,

(34) I bid., p. 467.

(35) I bid., pp. 468-470. J. L. Neve가 저술하고 서남동이 번역한 기독교포리사 1980년 6월 30일(대한기독교서회) 11판의 위면들을 볼 것. (36) L. Berkhof, op. cit., p. 167.

Calvin의 生存時에도 Albertus Pighius같은 Semi Pelagian의 반대파가 있었고 개신교로 개종했던 수도사 H. Bolsec의 반대도 날카로웠으며 그의 사후에 Arminius와의 논쟁은 최대의 싸움이었고 할 것이며 신비주의자 E. Swedenberg도 철저히 반대하는 태도를 표명하였다.

1. Albert Pighius

Calvin의 豫定論은 1543년 화린의 R. Catholic 논쟁가 A. Pighius에게 공격을 받았다. 그는 Pelagian의인 의미를 지닌 自由의지와 豫知를 조건으로 한 豫定을 가르쳤다. Calvin은 Pighius와 그의 동료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혹평을 가했다. "나는 한쌍의 不淨한 짐승(레 11:3)인 Pighius와 시릴리 사람 George에게 거룩한 싸움을 제의한다...이 무가치한 중상자...무가치한 人間...이 무가치한 存在 Pighius...허무한 인간...무능한 人生...가련한 피조물...더러운 짓는 개...짓는 개..."⁴⁰⁾

위와 같이 Calvin의 豫定論은 한쪽에서 강력한 반발을 받았던 것이다.

2. Hieronymus Hermes Bolsec⁴¹⁾

(1) 발단—Bolsec은 파리 태생으로 Carnet의 수도승이었는데 1545년경 로마교회를 떠나 신변보호를 위해 Ferrara에 피신했다가 의학을 공부했고 의학박사가 되었다. 1550년 제네바에 定居하여 직업에 종사하다가 Calvin의 豫定교리에 의혹을 품게 되었는데 드디어 그는 "Calvin의 하나님은 위선적요 거짓말쟁이며 犯人의 친구요 Satan보다 더 악하다"고 선언하였다. 1551. 3. 8. 드디어 경계를 받았으며 Calvin에게는 私의으로 지도를 받았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두번째의 罪로 宗教법원에 소환되었고 공개적으로 判決을 받았다.

(2) 그의 主張—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 구원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멸망으로 예정되었다는 것은 부인하였다. 그리고 가까운

판관로 그는 선택을 온 인류에게 확대시켰다. 구원이 유효한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그리고 왜 어떤자는 그 은총을 받아들이고 어떤자는 거절하는가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자유의지에 놓여 있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3) 그의 투쟁—1551년 10월 16일 Bolsec은 종교회의에 참여했다. 성 Andree John이 요한 8:41로 실포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부종의 은혜를 오직 택하신 자에게만 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때 Bolsec은 갑자기 실포자를 저지하였다. 그리고는 人間은 선택되었기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그들이 믿음을 가졌기에 선택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하나님이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한 인간의 운명을 죄와 형벌로 결정하였고, 다른 사람은 영원한 행복으로 定했다는 것은 거짓이요 무신론적이라고 실포했다. 그는 성직자를 몹시 비판하였고 회회가 잘못된 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였다. 결국 Bolsec은 성직자 모독죄와 공공 질서를 어지럽게 했다는 죄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Calvin측은 종교법원과 공회를 통하여 Bolsec을 장죄하려 했고 Bolsec은 Calvin에게 몇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定言의 대답을 요구하였다. 그는 Melanctohn, Bullinger, Brenz가 자신에게 동조할 것이라고 斷言하기도 했다. 드디어 공회는 5개조의 잘못을 지적하여 Bern과 Bolsec에 보냈다. 동시에 스위스 교회들에게 화람 편지로 보냈으며 반응을 기다렸다.

(4) Bolsec의 과오 5조목

- a) 신앙은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택이 신앙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점.
- b)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소경상태로 버려 두셨는데 이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인데도, Bolsec은 이같은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하는 점.
- c)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모든 이성있는 피조물에게 이끄시고 오직 하나님을 종종 거부하는 자들만 버리신다고 하는 점.
- d) 하나님의 은총은 보편적이며 따라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40) 池元禧, op.cit., p. 289.

(41) Philip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VIII. Wm. B. Eerdmans Pub. Co. p. 58, pp. 614-621을 보라

구원만도록 예정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e) 바울이 었 1:5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택했다고 했을 때 이것은 구원으로 선택했다는 뜻이 아니라 제지와 使徒로서 선택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점.

(5) 반응

a) 스위스 교회는 대체로 Calvin에 동의하였으나 Calvin은 대단히 불만스러웠다. 저들은 오히려 구원을 위한 자유선택의 교리에 동의했고 유기교리(遺棄敎理)는 언급을 회피해 버렸다.

b) Zurich의 성직자들은 Bolsec의 교소에 대해 Zwingli를 변호하였다.

c) Bullinger는 Calvin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좀더 신중하고 판단할 것을 강조하였다. "나를 믿으시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기독교 강요'에서 예정론에 관한 당신의 말에 불만을 품고 있으며, 마치 Bolsec이 Zwingli의 책 '하나님의 섭리'에서 끌어낸 것처럼 그 책으로부터 똑같은 결론을 끌어냅니다."

d) Basel 교회의 이름아래 Myconicke는 회화적으로 대답하였다. 그리고 Calvin과 Bolsec의 공통점에 대한 것을 강조했다.

e) Bern성직자들의 회신은 관용의 정신을 기대하였다. 그들은 진리와 통일을 위한 결정을 구구 청찬하였다. 그러나 박애와 관용의 동등하게 중요한 의무를 강조하였다. 아픔을 주어 이기기 보다 뒤에서 점잖게하여 이기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6) 판결—이러한 편지들의 효과는 Bolsec에 대해 관대한 판결을 가져왔다. 그는 소오죄와 Pelagian이라는 죄목으로 만약 다시 돌아오면 테형에 처한다는 조건하에 Geneva에서 추방당했다(155, 12, 23).

3. Jacobus Arminius(1560—1609)⁴²⁾

① 人物소개—화란 라이트 大學과 제네바대학에서 공부하고 Beza에게서 신학을 배웠다. 로마에 유학하고 돌아와 암스텔담 敎會의 목사가 되었고, 학식과 용변이 뛰어나 명성을 날렸다.

(42) 기독교 역사전 CTSK, 1960(5판) pp. 627f

② 그의 사상형성—당시 화란에는 Calvin파가 극성하였는데 유트 Coornheart 라는 사람이 열심으로 Calvin사상을 반대하면서 책을 썼었다. 또 Calvin주의 온건파는 타락은 하나님에 예지하셨으나 豫定은 아니었고 예정은 타락 이후에 있게 된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Arminius는 Coornheart의 보편구원설과 온건파의 학설을 공격하고자 壽命을 받아 연구, 正統 Calvin파를 옹호하려 했다. 그러나 연구 결과 그는 Coornheart에게 동조하게 되었고 과거의 自己 주장을 버리고 스위 Arminius설을 창조하게 되었다(1604).

③ 학설쟁탈—a) 그리스도의 만인대속설 b) 은혜에 대한 자유로운 수납 혹은 거부c) 성도의 성은(중생자도 끝까지 참음으로 구원된다. d) 중생자의 再타락 가능. e) 豫知에 의한 구원 확정(豫定은 무조건적이 아니다.)

④ Calvin의 경악과 Dort회의

Arminius의 선견으로 이 내용은 널리 퍼지고 변화 발달되었다. 이에 Francis Gomarus는 저들을 Pelagius 도령이라 하여 배척하였는데 이에 Arminius측은 화란파 서방 프리스텐드 敎會에 항의를 제출하고 5개 조목을 내걸어 Calvin설의 오류를 지적하고 은혜의 보편성을 논하고 Arminius설에 기울어져 논쟁을 금하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命令하였다.

그러나 Gomarus측은 주회에 불복 정치문제화하여 Arminius 사후 9년만에 Dort會議를 소집 1618. 11—1619. 5(154次회의)까지 장기간의 논의를 하였다. 그러나 이 회의는 처음부터 Arminius를 배척할 목적으로 열렸던 것으로 의장에는 Gomarus당의 거두 보켈만이었고 Arminius파에게는 변론할 자유도 안주고 결국 이들을 다 퇴장시킨 후 5개조의 Calvin파 신학에 의한 신앙개조를 결정하였다.

종회후 200여 Arminius파 교사가 면직되어 추방당하고 공화당의 당수 오펜 바르버트를 사형에 처하고 그로투스(유명한 법률가로 신학자로 Arminius파)를 투옥하였다.

⑤ 聖방 5개조의 비교⁴³⁾

Arminius 주의 五大 요점	Calvin주의 五大 요점
1. 人間의 자유의지	1. 神的 무능력(전적타락)
2. 조건부적 선택(인간의 자유의지로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2. 무조건 선택(하나님의 절대주권)
3. 만인구속, 일반적구속	3. 특별한 구원, 한정된 속죄
4. 효과적으로 저항될 수 있는 성령	4. 유효한 성령의 부름, 거절 불가능은혜
5. 온사에게 멸타남, 성도의 견인	5. 성도의 궁극적 구원

4. Wesley의 反對論

J. Wesley의 充實한 동료였던 Whitefield가 Calvinism으로 기울어진 것은 Wesley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이 두사람의 타협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Wesley와 Calvin 사상은 도저히 和解가 不可能한가?

Wesley는 그의 유명한 설교에서 Calvin의 예정론을 이렇게 통렬히 공격하였다.⁴⁴⁾

- ① 예정론은 모든 설교를 헛되게 한다.
- ② 예정론은 성결의 문을 닫아버리려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성결에 도달하려는 노력과 성결의 문에 들어가려는 노력을 막는 교리이다.
- ③ 종교가 지니는 위로의 복음을 파괴할 경향이 있다.
- ④ 선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열심을 멸절한다.
- ⑤ 기독교의 계시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든다(豫定이 啓示에 先在하기 때 문) Calvin주의자들은 不知申 작기가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不必要한 것으로 하고 있다.

(43) L. Botter, op. cit., 467-470(오주).

(44) J. Wesley, 설교 CXXVⅧ, 인용 Wm Cannon, 전통구역 "예수에 대한" 총리원, 1967. pp. 1034

⑥ 저들은 예정론을 성서적 기초 위에 확고히 세우려고 노력하나 실제로 있어서 성서 해석의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면 a) 롬 9:13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Inst, III x x ii 6). 예정론자들은 이것을 文字 그대로 해석하여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했으나 영원전부터 저주 받을 자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이런 해석은 성서의 전체적 해석에 특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선포하는 특수한 구절의 해석에 무의미한 모순을 초래한다. 이 구절은 야곱의 인간됨이다 에서의 인간됨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에서는 실제로 야곱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롬 9:12 형은 동생을 섬기라고 했으나).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족속과 에돔 족속들에게 관련된 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거부하든가의 조건에 의존한다.

b) 엠 1:4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Inst II x x ii.1) — 예정론자들은 이말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수의 사람만 위하여 죽으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N.T 전체의 정신과 모순된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르시도다"(롬 10:12).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행위를 내 식물로 망하게 말라"(롬 14:15).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사람만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멸망받을 사람도 위하여 죽으셨음이 分明하다. 그러므로 엠 1:4-7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함께 택하셔서 뒤에 믿은 모든 사람들도 저기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그의 값없이 주시고 변함이 없는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도록 예정하셨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⑦ 예정론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으로 가득차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선자와 기만자로 만들고 성실치 못한 지도자로 만들어 버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커보다 더한 거짓말장어로 만든다.

Wesley는 예정론에 대해 가장 신랄하게 공격을 가한다. "예정의 교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이미 칼을 빼들었으며 나도 끌까지 싸우겠다.”⁴⁵

한편 Calvin주의자들의 담변은 L. Boettner의 저서에 반대하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나 모두 다 대답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몇가지만 소개하면 ① 하나님은 목적뿐 아니라 방법까지도 예정하여 놓았다. ② 인간의 자연의 지는 약에 예속되어 있다. ③ 동일한 反對論은 예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것으로 Calvin 자신이 기독교 강요에서 담변하고 있는 것은 ① 하나님은 절대주권자이시니, 인간이 하나님께 할말할 수 없으며(III. x x iii. 4. 10) ② 성서에 있는 그대로만 알 것이지 더 지나치게 알려는 호기심은 죄가 되는 것이요(cf. III. x x i. 3) ③ 악한자도 악한 날에 쓰이기 위하여 창조된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다(III x x iii 6).

(5) E. Swedenborg의 反對論

신비주의자들의 특색은 영적인 시도에서 나타난다. 유명한 신비가 Swedenborg은 예정론을 극히 싫어하고 배격하였는데 그는 말하기를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류의 일부를 지옥에 보낼 예정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성있는 사람으로써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예정설을 믿는 사람은 교회의 성경을 경홀히 여길 수 밖에 없으며 하나님을 폭군으로 여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예정설을 시인하면 종교는 무가치한 것이며 인간의 자유 의지는 말살되는 것이다. 인간에게서 자유의지를 말살하면 그것은 벌써 사람이 아니요 동인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는 예정포리는 영적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문자에 얽매어 해석하려는데서 생긴 큰 모순되고 그릇된 이단의 견해라고 지적하였다.⁴⁶

V. 問題點

Calvin의 예정론은 비록 무수한 反對를 받아오면서도 때때로 信者들을 격려하고 새 용기를 주기도 했으며 많은 공헌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유 있는 신랄한 공격에 대해 대단히 난처한 위치에서 당황해 하기도 했다. 위에

(45) W. Cannon, I bid., p.113

(46) 강홍수, “선지서와 스웨덴버그”, 1948. 1957 8판 pp. 197f.

서도 많은 反對論을 소개했으나 이제 필자 자신의 私的 反對見解를 밝힐까 한다.

① 하나님의 요묘한 섭리를 인간의 논리와 개념에 억지로 가두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이론으로 보편성을 상실하고 있다.

② 고전 9:27 “내가 내 몸을 처 부중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진과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함이로라”는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가 신비되었다는 확신이 부족한 것일까? 결코 그럴리는 없다.

③ 예수님은 일종의 광대(Show Man)였지 참으로 구주가 될수는 없지 않은가? (만약 Calvin의 주장대로 한다면)

④ 人間이란 하나의 연극배우에 불과하지 않은가? 인간이 말은 配役에 따라 구원과 멸망이 決定된다는 것은 不合理的하다. 차라리 그 연기를 얼마나 充實히 실현(實演)하였느냐에 따라 상벌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⑤ ‘예정’이라는 用語에 대한 개념 差異로 理解의 差가 아닌가? (Paul Tillich는 用語의 뜻을 밝히는 것이 신학의 과제라고 하였다) 我田引水격인 授理解가 아닌가?

⑥ Augustine에게서 區別되는 赦許와 赦免을 Calvin은 거의 區別하지 않고 있다.

⑦ 성서의 字句的, 文字的 해석에 얽매이지 말고 逆觀的으로 相衡하는 성구의 심층적 연구와 靈的 통찰력이 要求된다.

⑧ 豫定論 反對者들에 對한 무차비한 批判 및 처형은 과연 성서 어느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⑨ 豫定論 반대자들이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豫定論者들이 하나님을 변호하겠다고 애쓰고 있다. 하나님을 죄의 창조자로 人間 犯罪의 최종 책임자로 만들어 놓고도 오히려 ‘하나님은 義롭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죄에 책임이 없으시다’고 변명하려고 급급하며,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기쁜신 뜻이니 義로운 것이며 너희는 알기알부 하지 말라”는 식으로 성실한 질문들을 일축하여 버린다. 하나님은 진리를 찾기 위해 성실한 질문을 하는 자들을 결코 경홀히 여기지 않으신다.

⑩ “칼빈주의 신앙은 싸움을 할 동안에는 가장 고상하지만 싸움이 끝나면 근본이 뻗뻗해 지는데 경계하지 않으면 아니된다.”(Eirik Routley, 칼빈주의자)⁽⁴⁷⁾고 지적한 것처럼 예정론은 개혁적이고 발전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보수적인 方面으로만 더욱 빠져들어가는 듯한 느낌이다.

⑪ 예정론자들은 Calvin 자신을 포함하여 예정론을 決定論 또는宿命론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비록 異教的 宿命론(하나님의 정하심에 의해 사건이 발생<예정론>하는 것이 아니라 맹목, 무지, 비인격, 무도덕한 세력에 의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Boettner는 설명한다.)⁽⁴⁸⁾은 아니라 해도 ‘기독교적宿命론’이 아닐까?

⑫ 성도들의 기도의 효험은 무엇인가? 기도도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VI. 結論

하나님의 예정을 무시하면 Pelagius와 같은 자유의지, 인본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고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면宿命론으로 기울어지기 쉽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할 의사가 없으시되 죄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이를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十字架의 고난을 당하시므로 인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 주셨고 만민 구속의 대역사를 이루셔서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은혜를 받아들일 자가 누구이고 거절할 자가 누구인지를 예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지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나 한편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인할 수 없어서 이 양자의 연관에 대한 신비에서 당황하였던 것을 엿볼 수 있다.

예정 교리에 대한 성서의 교훈을 절대적 예정과 절대적 유기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나니 예정적인 타락이란 있을

(47) R. M. Brown, 3판역역 “교회란 무엇인가”(성신도 신학총서9) CLSK, 1962, p. 124

(48) L. Boettner, op. cit., p. 235. Calvin의 해명은 The Secret Providence of God, reprinted in Calvin's Calvinism, pp. 261-262에 있는 것을 Boettner가 인용하고 있다(I Bid., p. 236).

수 없다. 우리는 마태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교훈을 받고 이를 정리 하여야 하겠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달란트(화폐의 단위)이면서 인간의 재능을 의미한다)를 주셨다. 문제는 많이 받고 적게 받은 分量에 있지 않고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며 주인을 향하여 어떤 충성을 드리느냐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예정(선택)되었다고 방심하거나 태만할 수 없고 유기되었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없으며 오직 使命的 價仰으로 우리의 삶을 갱신하며 헌신적으로 가꾸어 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대우하여 주고, 자기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신다. 모든 사람은 Wesley의 尾端대로 生存의 은혜로 향하여 있으며 구원이나 멸망이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인간의 自由意志에 달려있다. 신학적 모든 가설은 哲學的 논리나, 법률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어디까지나 신학적 체계, 신학적 논리는 성서에 기반하여 해석이 되고 논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John Wesley의 구원관은 John Calvin의 이보다 훨씬 성서적 근거가 뚜렷하고 객관적 설득력이 확실하다. 인간은 신의 필요, 불필요한 부품이 아니다. 신의 형상은 인간의 형상안에 깃들어 있다.

參考書

1. Johannes Calvin, *Institutio religionis Christianae*, English Copy, Institute of Religion.
2. Baetke, Hermann: *Die Probleme der Theologie Calvins*, Leipzig, 1922.
3. Baetner, Loraine: *The Reformed Doctrine of Predestination*, Michigan
4. Lawey, Edward A.: *The Knowledge of Good in Calvin's Theology*,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52.
5. Holl, Karl: *Gesammelte Aufsätze zur Kirchengeschichte*, 3Auff. 3Bde, Tubingen, 1928.
6. Kuyper, A.: *Calvinism*, New York, Revell, 1899.
7. Kerr, H. T., Jr.: *A Compend of the Institutes of Calvi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39.
8. Lindsay, Th.: *A History of the Reformation*, IVII, New York, 1906.
9. Luther, Martin: *Bondage of the Will*(Von Unfreien Wille), Eng. Tr. by H. Cole, Michigan, W. B. Eerdmann, 1931.
10. Torrance, T. F.: *Calvins Doctrine of Man*, Lutterworth Press, London, 1950.
11. Walker, Williston: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Edinburgh, T & T Clark, 1924.
12. Warfield, B. B.: *Calvin and Calvinism*, Oxford University Press, 1909.
13. Weber, M.: *The Spirit of Calvinism*
14. Schaft Philip.: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V III. (Modern Christianity The Swiss Reformation)* Wm. B. Eerdmann Publishing Company, Michigan, 1959.
15. 기독교사회, 기독교 역사전(LSK. 1960. 675vks) Barth Karl, 박봉량, 전경연, 은총의 선택 및 복음과 용면, 향린사, 1964. 1969.
16. Berkhof L. 신복관 역, 기독교 교리사, 신앙 문화사, 1959(原 The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17. Brown R. M. *The Significance of the Church*, 김관석역, 교회란 무엇인가? (영신도 신학총서9) CISK. 1962.
18. W. Cannon, 전종욱역, 웨슬레 신학, 장리교 출판원, 1962. 67(再).
19. J. I. Neve,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Vol I. A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Vol II.*
20. 서남동역, 기독교 교리사 CISK, 1965.
21. 강홍수, 셴다심과 스웨덴분, 天光社, 1948, 1967(8판).
22. 이근산, 칼빈, 칼빈주의(개혁신학 총서3), 교신대 출판부, 부산 1972.
13. 이창익, 기독교 사상과 제2권 CISK, 1966.
14. 지원용, (배만국 편), 문태와 종교개혁, 문필대이사. 1972.

요한 웨슬레의 人間觀과 救援觀

姜 三 榮

目 次

I. 序論	2. 福音的 神人協働說
II. 웨슬레의 人間의 理解	3. 聖靈의 役事
1. 最初의 人間	IV. 웨슬레의 救援概念
2. 墮落한 人間	1. 웨슬레의 救援의 內容과 順序
3. 罪의 結果와 二重性의 問題	2. 웨슬레의 救援觀 理解
III. 웨슬레의 恩寵觀	3. 구원하시는 하나님 의 役事
1. 先行的 恩寵	V. 결론
	「註」
	「參考文獻」

I. 序 論

한척의 사람(Homo Unius libri)" 요한 웨슬레의 神學的 關心의 中心은 救援論이었다" 救援이란 用語의 뜻에 對해서 聖經은 "하나님께서 具體的인 歷史的 事件 안에서 그의 百姓을 滅亡으로 부터 救援하셨다는 事實에 關心을 가지며, 그의같이 證明된 歷史的 救援이 將次을 救援의 예 또는 典型이다."고 宣布한다. 卽 救援이란 罪人인 人間이 하나님 의 恩寵(Gratia)에 對해

「註」 I. 序論

1. John Wesley, preface to the *Sermons*, *Sermons*, Vol. I P32(以下 *Sermons*로 표기함).
2. William R. Cannon, 웨슬레 신학, 전종욱역, 서울, 기독교대한장로회, 1967. P. 275.
3. 기독교 대백과 사전 편찬위원회, 기독교 대백과 사전 제2권, P344.